

## 보성군, 생활 SOC 700억 원 예산 확보

복합 센터 보성읍·별교읍 2곳...2022년 입주 목표  
민선 7기 주요 도심 전략 사업 시책 추진 '청신호'



보성 복합커뮤니티센터(가칭) 조감도

보성군이 국토부·문체부·여과부와 연계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서 7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민선7기 주요 도심 전략 사

업들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며 시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번에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는 보성읍, 별교읍 2곳이 선정됐으며 2022년 입주를 목표로 각각 410억 원, 2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현재, 보성 복합커뮤니티센터(가칭)는 12월초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하2층~지상5층 규모로 지어지는 보성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공영주차장,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가족센터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여가생활 인프라가 갖춰질 계획이다.

별교문화 복합센터(가칭)는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실내수영장,

공영주차장, 작은 영화관 등이 들어서며 지하1층~지상5층 규모다.

특히, 별교읍의 경우 지난 2월 선정된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58억원)'에 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 SOC복합화' 기조를 접목해 공영주차장,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가족센터 등을 추가하며 국비 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되며,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보성읍과 별교읍 지역 경제 부흥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라며 "구도심 활성화, 주민들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물 등과의 시너지를 키울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성=안구일 기자



호남·제주 다문화 혼인 이혼 출생 건수

## 전남 다문화가정, 지난해 809건 결혼·466건 이혼했다

전남의 다문화가정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통계상 혼인가구의 절반 넘는 가구가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통계로 본 2018년 호남·제주 다문화 현황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남지역 다문화 혼인 건수는 809건이었다.

이는 전년의 759건보다 6.6% 늘어난 수치다.

다른 지역 다문화 혼인가구의 경우 광주주는 2017년 488건에서 2018년 525건으로 7.6% 증가했고, 전북도 744건에서 766건으로 3.0%가 늘었다. 제주 역시 392건에서 443건으로 13% 증가

했다. 이처럼 혼인가구가 증가한 것과 더불어 다문화가정의 이혼 건수도 늘고 있다.

2018년 전남의 다문화 이혼은 466건으로 혼인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북 404건, 광주 238건, 제주 189건 등이었다.

1년 전인 2017년의 경우 다문화 이혼건수는 전남 509건, 전북 356건, 광주 202건, 제주 160건이었다.

2018년 전남의 다문화 가구는 1만3342가구로 전년대비 4.1% 증가했으며, 출생은 774명으로 16.0% 감소했다.

허성은 기자

##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계획 확정...내년 본격 시행

병목정류소에 점핑버스·3-Door 출퇴근전용버스 도입

광주시가 해마다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며 '혈세 먹는 하마'로 전략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광주시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준공영제 혁신 TF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우선 개선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 계획은 시민 서비스 제고,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준공영제 효율성 향상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개선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송업체 서비스 평가 매뉴얼'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통카드 수수료 인하와 선수금 이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카드사의 사업비를 검증해 교통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선수금 이자도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교통복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도로가 좁아 시내버스 운행이 어렵고 수요가 적은 노선에는 준

중형버스를 도입해 노인 등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운송원가를 절감한다.

출퇴근 시간대 일시에 몰리는 승객으로 버스를 타지 못하는 병목정류소는 점핑 또는 3-Door 혼잡노선 출퇴근 전용 버스를 시범 도입한다.

점핑버스는 출퇴근시 만차로 더 이상 승객을 태울 수 없을 경우 해당 정류소에 빈차를 투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중기계획 용역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대비해 도시철도와 시내·마을버스 연계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대중교통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버스노선의 면허와 운영권을 소유하고 임찰을 통해 노선운영자를 결정하는 노선입찰제는 도시철도 2호선과 신규 택지지



정중재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TF 3차회의에 참석해 준공영제 운영 개선계획을 확정하고 참석 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개발 등으로 인한 노선신설이 필요할 경우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표준운송원가 정산, 운송수입금을 관리하는 수입공동관리위원회 위원수를 현재 9명에서 12명으로 늘려 시의원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준공영제 조례도 보완 개정하고

시민 알권리와 준공영제 재정 지원의 투명성, 적정성 강화를 위해 자본·부채 등 재무상태, 손익현황 등 운송업체 경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매년 용역을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 산정하는 표준운송원가 제도도 시 감사위 감사 결과를 반영하고 실사를 통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서은홍 기자

## 강진 가우도에 진짜 '출렁다리' 새로 설치

2021년 준공

강진군은 '가고 싶은 섬' 가우도를 서남해안 거점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가우도 탐방로 경관 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가우도에 출렁다리, 포토존,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가우도의 관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가우도에는 대구면 저두와 도암면 망호를 연결하는 출렁다리가

있지만 실제로는 출렁이지 않아 관광객의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출렁거리는 다리를 가설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2021년 준공 목표로 내년 1월 설치공사를 착공한다.

새로 선보이는 출렁다리는 폭 1.8m, 길이 150m로 가설될 예정이며, 다리로 편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시점부 46m, 중점부 66.5m의 진입 데크가 설치된다.

가우도에는 강진 대구면을 잇는 저두 출렁다리(438m)와 도암면을 잇는 망호 출렁다리(716m)가 연결돼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국민의 내일을 위한 동반자  
보다나온 KFD

## 올타리

올타리는 그 만의 가치를 보존하고 가꾸어줍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농어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올타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안전중심 경영체계 구축**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공사 시설물 안전 관리는 물론, 공익적 기술 지원으로 국민안전에 책임지고 있습니다.

---

**재해대비 능력 향상**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의 현대화와 함께 '재해예측시스템' 운영으로 능동적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

'안전관리컨설팅', '안전신고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깨끗한 농어촌 우수 공급과 생태계 보전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함께 농어촌의 고유 가치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KFD 한국농어촌공사**